



■ 허정무호 월드컵 예선 요르단전(31일) 대비 훈련

요르단 축구팀 오늘 입국

“박지성도 못하면 주전에서 빼겠다”

■ 허정무 감독



“박지성이라도 몸이 안 좋고 부진하면 뺄 것이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요르단과 3차전(31일 오후 8시·서울월드컵경기장)을 앞두고 축구대표팀 허정무(53) 감독이 국내파와 해외파를 가리지 않고 최상의 전력으로 1차 목표인 최종예선 진출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8일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메이필드호텔에 대표팀을 소집한 허정무 감독은 첫 훈련에 앞서 “해외파든, 국내파든 컨디션이 가장 좋은 선수가 경기를 뒀다”고 재차 강조하며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라도 몸이 안 좋고 부진하면 빼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집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3차 예선 3차전 요르단전(31일)을 시작으로 4차전 요

르단 원정(6월7일)과 5차전 투르크메니스탄 원정(6월14일), 6차전 북한전(6월22일)까지 총 25일 동안 이어진다. 대표팀은 첫날부터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내셔널리그 강호 고양 국민은행과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태극전사들의 컨디션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 1, 2차전을 치르며 베스트 멤버 중 해외파의 비중이 높았다. 해외파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 ▲ 해외파, 국내파를 떠나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이 경기에 나갈 것이다. 해외파 선수들의 몸 상태가 안 좋으면 그 뒤를 다른 선수들이 충분히 메워 줄 것이다. - 그 동안 해외파, 특히 프리미어리그 선수에게는 주전 기회를 많이 줬다. 몸이 안 좋은 프리미어리그보다 몸 좋은 K-리거가 먼저 아닌가. ▲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 훈련 보고 결정하는데 국제 경기라는 점 등 여러 측면을 고려했다. 매 경기 똑 같은 기량을 발휘한다면 아마 축구는 재미없을 것이다. 해외파, 국내파를 안 가린다. 박지성이라도 몸 상태가 좋지 않고 부진하면 뺄 생각이다. - 중앙수비수를 발굴하는 것도 과제인 듯한다. ▲ 중앙수비수가 K-리그 전체를 봐도 부족한 편이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요르단과의 경기를 사흘 앞둔 28일 경기도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과 고양 국민은행과의 연습경기에서 대표팀 선수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국민은행의 프리킥을 몸으로 막고 있다. 국가대표팀이 2-3으로 패했다. /연합뉴스

다. 그나마 경기력이 좋고 능력을 갖췄다고 보는 선수들을 뽑았지만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측면 수비수인) 오범석(사마라)과 김동진(제니트)도 대체 자원으로 고안하고 있다. - 박지성에게 가장 적합한 역할은. ▲ 박지성은 좌·우 측면과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해 왔다. 본인과 대화도 계속 하고 훈련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박지성은 시즌 종료 시까지 소속팀에서 계속 뛰었고 귀국 후에도 바쁘게 움직였다. 일단 컨디션을 체크하고 다른 선수와 조화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 - 안정환을 발탁한 이유는. ▲ 소속팀 부산은 슬럼프에 빠졌지만 안정환의 몸놀림은 결코 나쁘지 않았다. 기술과 결정력은 물론 후배들을 이끌고 팀의 기동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안정환만의 장점이 있다. 경기에 못 나가든, 5분을 뛰든 팀을 위해 희생해달라고 얘기했다. 몸 상태는 전혀 문제 없다. - 요르단의 색깔은. ▲ 두려운 상대는 아니지만 만만치 불 상대도 아니다. 철저히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마르티뉴 빈가다 감독이 지휘하는 요르단 축구대표팀이 29일 한국에 온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3차전에서 허정무호와 격돌할 요르단은 29일 오후 4시3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서대문구 흥동동 그랜드힐튼호텔에 여장을 풀 뒤 다음 날 적흥훈련에 나선다. 요르단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0위인 한국보다 무려 54계단이 낮은 104위이지만 중동 특유의 강한 체력과 스피드를 자랑하는 ‘북방’이다. 한국은 C조에서 나란히 1승1무1북한에 골 득실에서 앞서 선수를 달리고 있고 1승1패를 기록중인 요르단은 3위로 바짝 뒤쫓고 있다. 요르단은 앞서 북한과 홈 1차전에서 0-1으로 졌지만 투르크메니스탄(2패)과 원정경기에서는 2-0 승리를 거뒀다. 이어 입국 전인 2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대표팀과 평가전에서는 0-2로 달미를 잡았다. 그러나 자멸의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에 강한 팀이어서 한국으로서는 방심할 수 없는 상대다.

獨 골키퍼 칸 문헌팀 고별전

독일 축구의 ‘거미손’ 수문장 울리버 칸(39)이 28일 인도에서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 공식 경기를 치렀다. 칸은 이날 저녁(현지시간) 인도 풀카타의 슐타레이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모한 바간과의 친선경기에 55분간 출장해 골문을 단단히 걸어잠그며 3-0 승리를 이끄는 것으로 뮌헨 소속선수로서의 공식 경기를 마감했다. 칸은 은퇴를 공식 발표한 상태이며 오는 9월 독일 국가대표팀과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그라운드를 떠난다.

“어떤 역할이라도 충실”

■ 박지성



축구 국가대표팀의 ‘핵’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역할이라도 충실히 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지성은 28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메이필드호텔에서 진행된 대표팀 집단 인터뷰에서 “허정무 감독님의 주전에 따라 대표팀에서 어떤 역할이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허정무 감독의 박지성 활용법은 대표팀 소집훈련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 중 하나다. 박지성은 북한과 2차전에서 다시 왼쪽 측면 공격수로 먼저 나왔지만 수비수 김남일이 갑작스런 부상

으로 벤치로 물러나는 바람에 ‘박지성 시프트’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요르단전을 앞두고 허 감독이 박지성에게 어떤 임무를 맡길지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박지성은 “아직까지 특별한 역할을 맡지는 않았지만 대표팀에 잘 어울려 좋은 경기를 펼치고 싶다”면서 “어린 선수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겠다”고 말했다. 박지성은 또 2008 베이징올림픽 대표팀 일정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겹치면서 남모름 고민도 떠났다고 털어놨다. 올림픽 대표팀에서 와일드카드 0순위 후보인 그는 ‘올림픽과 프리미어리그 기간이 겹치는 데 걱정이 없다’란 질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느 부분은 포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권이 주어진다 해도 고민스러울 것이다. 어떤 결정이 나와도 잘 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적당한 때 대표팀 은퇴”

■ 이영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대표팀에서 물러나겠다.” 태극전사 터줏대감 이영표(31·토트넘)가 축구대표팀 은퇴 시기에 대한 속내를 조심스레 공개했다. 이영표는 28일 대표팀 인터뷰 자리에서 “소속팀은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지만 대표팀은 다르다”며 “대표팀은 본인 이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표팀 은퇴시기에 대해 아직까지 심각하게 고민해보지는 않았지만 적당한 시기와 방법, 기회가 필요하다”며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으로선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9년 6월 코리아컵 멕시코전을 통해 A매치 데뷔전을 치렀던 이영표는 2002 한일월드컵과 2006 독일월드컵 등 두 차례 월드컵에 출전하는 등 9년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수비수로 인정을 받았다. A매치 경력만 95경기(5골)로 선두리플럼(A매치 100경기 이상 소화) 가입을 앞두고 있다. 한일월드컵 이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진출한 이영표는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어 한국인 2호 프리미어리거로 변신했다. 하지만 최근 소속팀에서 경기 출전 횟수가 크게 줄어 들고, 이적설이 꼬리를 물으면서 서서히 대표팀 은퇴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영표는 이적과 관련된 여러 소문에 대해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내가 진로를 선택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9일(목) ▲서울 국제 트라이애슬론 대회(13:50-MBC) ▲2008 SBS코리아투어 금호아시아나 오픈 1R(14:10-SBS 골프) ▲2008 삼성카드 프로야구(두산·LG)(18:00-KBS N SPORTS)(삼성·우리)(18:20-XPORTS)(기아·SK)(18:30-MBC ESPN)(한화·롯데)(18:30-SBS스포츠) ▲2008 AFC 아시안컵 여자축구(일본·한국)(21:30-XPORTS) 30일(금) ▲2008 PGA 메모리얼 토너먼트 1R(04:00-SBS 스포츠-SBS골프)

Real estate advertisements including '대인동상일부동산', '고흥신도시공인중개사', '법원경매 전문', '국민공인중개사', and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contact information.